

## 지속가능한 창작공동체, 문래창작촌

문래공간네트워크

정동훈

문래동에서는 2007년 ‘문래예술공단’을 시작으로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장르별, 직업별로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가 활동하고 있다. 문래공간네트워크도 이러한 커뮤니티의 하나로, 2011년도에 생겨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문래동의 몇몇 개별 작가 및 단체들의 연합체이다. 우리 단체는 문래동에서 미술을 기반으로 공간을 운영하고 전시 및 공연을 하는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고, 문래동 내외의 작가들의 전시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의 여러 이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는 활동도 진행해오고 있다. 최근 우리 연구모임에서는 문래창작촌의 변화과정을 조사 및 기록하고, 타 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문래창작촌은 문래공간네트워크 외에도 많은 커뮤니티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 점은 문래동이 다른 예술가 밀집지역(대흥, 성신여대 인근과 같은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으로, 본인들의 선택이 강해 쉽사리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기가 쉽지 않은 예술가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예술가들이 어떻게 지역을 바탕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지속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이것이 예술가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다른 창작촌, 창작공간과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1.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와의 교류활동

부산시에서 조성한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는 부산시 중앙동 일대의 유휴공간을 시에서 임대하여 작가들에게 지원한 창작공간이다. 이곳은 서울의 많은 레지던시 프로그램과 비슷하게 작가들을 공모하여 선정한 후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들은 직접적인 임대료 지원과 3년이라는 입주기간 동안 안정적인 환경에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래동뿐만 아니라 서울 내 다른 창작공간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작업실 외적으로 작업활동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은 소수에게 한정되어 있어 입주작가 간 네트워크나 교류활동은 환경적 조건에 비해 많지 않았다. 이 부분은 별다른 직접적인 지원 없이 간접적인 프로그램 지원(문래예술공장 및 서울시 내 문화예술 공모 프로그램)과 자발적 활동으로 진행되는 문래창작촌과는 다소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실제 부산지역 작가들과의 대담에서 문래창작촌의 생활권역을 바탕으로 한 일상적 교류와 프로그램을 통한 창작활동 지원 등의 내용은 부산지역 작가들에게



사무국 중심의 활동에서 나아가 작가들 간의 교류를 통한 활동이 좀 더 필요함을 상기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러 단위에서 움직이는 문래창작촌과는 달리 사무국 중심으로 움직이는 또따또가는 국제교류, 소속작가 관리, 아카이브 자료 등에 있어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문래창작촌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이 밖에도 예술행정 교류 외에 탐방 작가들 간의 작품활동 교류 및 작업 소개활동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문래-부산 간 네트워크 활동 기반을 쌓는 활동이 되었으며, 작가들 간에 작품세계를 교류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다수의 부산지역 작가들의 경우 지역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공간과의 교류를 통해 활동을 넓히는 것에 대한 열망이 있었으며, 문래 역시 젊은 작가들을 중심으로 한 창작활동 활성화와 교류활동 증진이라는 차원에서 상호간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전시 및 작가교류 프로그램이 앞으로 많이 진행되기를 희망하였다.

문래공간네트워크에서는 문래-부산 간 교류활동을 통해 창작촌 내 단체들 간의 협업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국내 기획교류 활동에 대해 좀 더 논의했으며, 향후 진행되는 문래예술공장의 기획안에서도 이에 대한 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 문래예술공장 및 창작촌 내 활동 기록

문래공간네트워크에서는 문래창작촌에서 벌어지는 예술활동 및 변화과정을 5개의 영역으로 분류하고 조사 및 기록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아래 표 참조).



연번	영역	세부 내용
1	문래예술공장 관련 사업	Meet project
		커뮤니티 프로모션사업
		민관 거버넌스 운영
2	지자체 관련 지원사업	마을예술창작소
		영등포구청 관련 지원사업
3	민간 단위 문화예술시설 및 작업실	오픈공간 37개 그 외 작업실 50~60여 개
4	철공산업 및 예술산업 연계활동	문래예술공단 환경조형물 제작 생태계 조사 연구
		철부지 문래동
5	국내외 교류활동	Singapore substation
		독일 자브뤼켄
		부산 또따또가
		태백 철암

이를 통해 양적, 질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문래창작촌 내의 예술활동 및 지원활동 내역을 조사하여 단위별로 진행되고 있는 각 사업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고, 각 사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시사점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철공산업 및 예술산업 연계활동 영역에서는 현재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 계층 간 갈등에서 두 집단이 공존할 방법을 실제 연구하고 있는 사례를 통해 소개함으로써 이 지역이 예술창작촌으로서의 가능성만이 아닌 다양한 영역의 산업이 공존하고 융성될 수 있는 실험적인 장소임을 알리고자 하였다.

창작촌에서 위와 같은 사업이 늘어나고 내외부의 교류가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려스러운 부분도 나타나고 있다. 특정 단체와 사업을 중심으로 문래창작촌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운 채 실제적인 창작촌 내의 교류보다는 외부적 시선에 맞추기 위한 급조한 사업이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단기적인 지역의 관광화만 부추길 수 있어 예술가들의 고유의 창작욕이 지역을 통한 소비산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했다. 또한 기존 창작자들의 커뮤니티가 고유한 순수성이 소거되고 사업적 성과를 위한 움직임으로 변하는 것 역시 이 지역의 특징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작촌 내의 커뮤니티들은 각 단체만의 움직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채널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각 단체들의 이해관계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서로의 처지를 돌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이들이 초기 아무것도 없이 낙후된 이곳에 들어와 서로의 터전을 만들고 도움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었기에 가능하며, 이들의 커뮤니티가 많은 갈등 속에서도 현재까지 유지될 수 있는 이유일 것이다. 대외적으로 형성된 문래창작촌의 정체성이 초기 이곳을 조성하고 이곳을 바탕으로 형성한 각 단체들의 사업에 크게 기인했지만, 앞으로 새로이 유입되는 예술가들과도 열린 마음으로 ‘함께 살기’로 나아갈 때, 현재처럼의 리버럴하고 역동적인 창작촌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글은 서울연구원의 2013년 「작은 연구, 좋은 서울」 연구지원사업의 연구모임으로 선정되어 활동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